

# 무덕관 황기의 수박도와 오도관 최홍희의 태권도 역사적 재조명

김종길\*(용인대학교 교수)

## 국문초록

이 연구는 무덕관 황기 수박도와 오도관 최홍희의 태권도 역사적 재조명을 통해 역사적 근원과 신체학문실제의 학문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황기와 최홍희와 유사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으나 두 사람은 절대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둘째, 황기는 무덕관이 통합조건에 불응하자 매년 실시하는 전국체전은 자기 고향에 명예를 걸고 출전하여 기량을 겨루는 국가 체전인데 무덕관 관원은 대한체육회의 산하단체가 아니라 하여 선수 선발에서부터 제외 시켰다. 반면 최홍희가 세계와 북한에 태권도를 보급시키는데 그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 세계태권도에 아버지라 일컬어지던 최홍희의 뛰어난 재주와 태권도의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 셋째, 황기와 최홍희에 의해 오늘날 대한민국 태권도는 세계적인 무도로 입성할 수 있었다. 즉 최홍희는 태권도를 세계위상에 알리고자 하였으며 황기는 수박도를 세계정상에 올려놓았으며 무명에 따라 비록 다른 행보를 했더라도 두 사람의 의지에 따라 국익선양에 이바지하였다. 이상과 같이 종합해 볼 때, 무덕관 황기 수박도와 오도관 최홍희의 태권도 역사적 재조명을 통해 역사적 근원과 신체학문실제의 학문적 방안 및 정체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무덕관, 수박도, 오도관, 태권도, 재조명, 역사

---

\* russiakim1@daum.net

## I. 서 론

한국의 태권도는 신체문화 중에 최고의 상품으로 중국의 우수나 일본의 가라테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유도에 이어 동양의 무도로써 올림픽 종목에 채택되었다. 이로써 태권도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뛰어 넘어 세계인들 함께 수련하는 무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무예 역시 일제강점기 시기 때 전승된 모든 무예가 사라지고 만다. 일제에 의해 전파된 외래무예가 자리를 잡고 있던 시절이다. 일제강점기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강대국 내정간섭으로 분단되는 아픔을 겪는다. 이로 인해 38선을 경계로 남북이 분단되어, 즉 남쪽은 미군이 진주함과 동시에 미군정이 정치적 통치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아픔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태권도는 한류문화로서 남북평화 관계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만큼 태권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대표 무도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태권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 있다. 그가 바로 최홍희이다. 그는 과거 북한에 태권도 보급에 있어서 크나큰 역할을 하였으며 일본 공수도를 벗어난 한국형 태권도를 창립한 인물이다. 즉 태권도 복장부터 신라무사들이 입었던 모습으로 재현하였다. 태권도 품세에서도 직선위주의 형태가 아닌 곡선과 직선의 조화로운 품세를 창안하였고 또 당수도 무명에서 우리나라 상징인 태권도로 창시하였다.

반면 황기는 우리나라 무예와 중국무예에 관심이 많았으며 일본 공수도의 기원 및 기법을 연구하여 분석하였다. 즉 청도관 관원이며 철도국 도서관에 근무하던 현종명을 통해 청도관 창설자인 이원국과 조선연무관의 공수도부 사범인 전상섭과 관계를 맺게 되어 일본 가라테(공수도)에 관한 서적을 접하게 되었다. 이는 철도국 도서관에서 이 가라테 서적을 숙습정통(熟習精通)하면서 무덕관 당수도라 명칭을 탈바꿈시킨다. 이후 당수도 보급에 힘을 기울

이며 많은 무도수련생들이 입관하게 되었다. 전상섭과 이원국은 서로 파생된 관이 다르나 일본유학시절 일본도장에서 공수도를 수련한 정통과 유단자들로서 국내의 제자도 상당히 많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중국무술 권법을 사사 받았으며 또한 『武藝圖譜通志』 권법의 수박도를 창안 하여 한국적 전통무예인 수박을 재현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태권도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올림픽 종목에서 퇴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태권도의 문제점으로는 관중에게 지루하게 보이는 겨루기 방식, 조직 내의 부정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일선 도장의 수련생이 주로 초등학생이라는 점과 성인 수련생이 수련할 프로그램의 부재와 태권도의 역사 문제가 갖는 정체성확립 등이 한계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도출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태권도는 발전보다는 퇴보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에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황기는 <화수도(花手道)>라는 이름으로 발간하게 되고 그 후 <당수도 교본(1958)>, <당수도 보신법(1960)>, <수박도 대감(1970)>, <무도철학(1993)> 등이며 또한 최홍희는 태권도의 수련체계는 제작된 교범을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오도관과 ITF에서 출간한 교본에는 《태권도교본》(1959), 《태권도 지침》(1966), 《태권도 교서》(1972), 《태권도 백과사전》(1984) 등을 집필하였다. 허인욱(2008)의 『태권도 형성사 (관을 중심으로 살펴본)』, 최점현(2008)의 『대한민국 태권도 오천년사』, 김기홍 외 2명(2007)의 『태권도의 역사철학적 탐구』, 이창후(2003)의 『태권도의 삼재강유론』, 김주형(2004)의 『이야기 태권도』, 논문들은 송문철(2015)의 「제주 태권도 경기 변천과정」, 강원식·이경명(1999)의 『태권도 현대사』,姜昶和(2006)의 「현대 태권도의 정체성 고찰 - 한국 무예의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국기원(1993)의 『국기 태권도교본』, 김동우(2014)의 「광복이후 한국 태권도 경기의 변천과정」, 홍성보(2006). 북한 태권도의 특성에 관한 연구, 김영선(2011)의 『우표로 보는 태권도 발자취』, 이경명(2002)의 『우리 태권도의 역사』, 안용규(2000)의 『태권도 역사 정신 철학』, 서상렬(2015)의 『무덕관은 통합하여야 한다.』, 김용욱(2013)의 『태권도철학의 구성원리』,

대한태권도협회(2015)의 『대한태권도협회 50년사』, 이창후(2003)의 『태권도 현대사와 새로운 논쟁들』, 서성원(2007)의 『태권도 현대사와 길동무하다 (1945년부터 2006년까지의 생생한 기록)』, 박민호(2012)의 「태권도 세계화 전략의 전개양상과 향후 과제」, 정정규(2008)의 「광복이후 태권도 시대적 변천사에 대한 문헌적 연구」, 양진방(1986)의 「解放以後 韓國 跆拳道의 發展過程과 그 歷史的意義」, 권혁정, 이동건(2015)의 「한국의 태권도사상에 관한 연구」, 국기원(2015)의 『태권도 9개관 역사 자료집』 등이다.

위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듯이 무덕관 황기 수박도와 오도관 최홍희 태권도 역사적 재조명에 따른 역사적 근원과 신체학문실체의 정체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무덕관 황기 수박도와 오도관 최홍희의 태권도 역사적 재조명을 통해 태권도와 수박도의 역사적 근원과 신체학문실체의 정체성 제시를 규명하였다.

## II. 연구방법

이 연구방법에서는 무덕관 황기 수박도와 오도관 최홍희의 태권도 역사적 재조명을 통해, 즉 태권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수박도 역사적 근원과 신체학문실체의 정체성을 제시하였다. 즉 연구의 범위는 무덕관 황기 수박도와 오도관 최홍희 태권도에 관련된 역사논문, 고대고증문헌, 고대동양무술서적, 인터넷 자료 등을 조사분석·논의하였다. 이에 관한 1차 사료와 2차 사료의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무덕관 황기 수박도와 오도관 최홍희 태권도 역사적 재조명의 정체성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쟁점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덕관 황기와 오도관 최홍희의 통합과 분쟁에 대하여 심도 있게 조사분석·논의하였다. 둘째, 수박도 창시자 황기와 태권도 창시자 최홍희의 생

애와 인생철학을 심층적으로 조사·분석·논의하였다. 셋째, 국기 태권도로서와 전통무예 수박도로서 역사적 관점 추이를 심층적으로 조사·분석·논의하였다.

이상의 구체적인 논제를 주목하여 무덕관 황기 수박도와 오도관 최홍희의 태권도 역사적 재조명을 통해 역사적 근원과 신체학문실체의 정체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무덕관 황기와 오도관 최홍희의 통합과 분쟁

황기는 우리 민족의식의 주체가 강한 사람이었다. 1939년 조선총독부의 창씨 개명령으로 모든 조선인은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하지만 황기는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조상이 물려준 이름을 개명할 수 없었다. 일제강점기를 마치고 해방이 다가오던 시절 1945년 3월 용산헌병대에 연행되었으나 이름 개명의 강압에도 개명하지 않았다(서상렬, 2012).

한편 우리 민족은 8·15해방 직후 사회적 혼란기가 있었던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무예의 중요성 인식이 매우 부족했다. 아직까지 그 인식은 부족하다. 이에 대해 지난 과거 전) 무덕관 사무총장 서상렬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으며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황기는 모든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근무했던 심사계 옆창고를 사용했다. 평수는 10평정도 밖에 안된다. 그때 당시 무명도 무덕관 화수도란 명칭으로 간판을 걸고 수련생들을 모집했다.

처음 입관 인물은 함재성, 오원영, 이상초 등이다. 하지만 약 2개월도 못가서 그만둔다. 이후 1946년 초 같은 운수부 동료들인 신재영, 홍성균, 윤제철, 김육, 김동한 등이 입관하여 권법을 수련하고 중국식 세와 보법까지 습득하였다. 무예의 견해가 깊지 않았던 그들은 수련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무명이 생소했고 인구 저변확대에 있어서 당시는 일본 공수도나 당수도는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화수도란 명칭은 황기만 알고 있을 뿐, 대중에게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가 무명으로 명명한 화수도란 독창적인 명칭을 창안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식민지에서 해방 독립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왜색을 일소하기 창안이었다.

우리 고유의 무예를 창설하고자 기인하는데서 비롯되었다. 이처럼 무예는 정신수양과 신체단련 그리고 민족사상의 근간인 만큼 정신적 지주였기에 신라 화랑도 정신에 근원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이를 해석하자면 우리나라의 고유한 민족 화랑도 정신에 입각한 화수도를 통한 사람들의 심신수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1950년 한국 최초의 무도교본인 화수도 교본을 발간하게 되는데, 즉 화랑도의 민족사상이 지배적인 견해이었던 것을 엿볼 수 있다(허인욱, 2002).

하지만 그의 생각처럼 인구 저변확대도 싶지 않았다. 장소에서도 그 당시 운수부 청사가 용산 한강로 2가에 있었으며 외진 곳으로서 관원모집도 잘 되지 않았다. 창안한 새로운 무명에 사람들을 흡수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당수도로 명칭을 사용하면서 수련 내용도 오키나와 가라데로 바꾸어, 즉 시대적 감각에 맞게 자체 변모를 시작하여 명실공히 인구 저변확대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즉 이원국은 1944년 9월 서울 서대문구 옥천동에서 청도관을 개관한 무도인이었다. 그는 19세 때인 1926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중·고교를 거친 뒤 일본 중앙대학 법학과를 진학하였다. 일본 공수도의 본관인 쇼토칸(松濤館)에 입문하여 공수도의 시조라 일컬어지는 후나고시 키친(船越義珍)으로부터 가라데(공수도) 전수를 받았다. 그는 송무관의 창설자인 노병직과 함께 가라데(공수도)를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상섭은 일본에서 공수도를 수련하고 1943년 귀국하여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대한유도학교 조선 연무관에서 유도와 가라데(공수도)를 지도했던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6.25사변 당시 전상섭은 납북된다. 그는 인격이 있고 천성이 온후했고 한학에 조예가 있던 황기는 연장자인 이원국과 같은 행보를 하게 되었다. 이원국, 전상섭 도장은 저변확대에 활성화가 되어 있었고 1947년 3월 무덕관이 어느 정도 협회의 변모 형태를 갖추고 있을 때 째 청도관에 현종명, 엄운

규도 무덕관에 방문하여 수련을 하기도 했다. 즉 유급심사에는 이원국, 노병직, 전상섭 등이 참관하여 관의 우의와 친목 그리고 교류를 하였다(서상렬, 2012).

이때부터 운수부 시설국 전기과의 김은창, 경리와 심사계의 김용덕, 운수부 철도경찰인 남상현, 유화영 등이 기술을 습득하고 기량이 향상되어 무덕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또한 운수부 당수도장의 마땅한 장소를 찾던 중 서울시 철도국의 배려로 철도병원 뒤 옛 일본인 유치원으로 도장을 이전하게 되어 더욱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지리적 특성과 도장시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입관하였다. 뿐만 아니라 운수부 산하의 많은 직원들이 입관하고 무덕관의 관세가 널리 전파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운수부 건설국 보선과의 최희석, 이복성, 문기상, 원용범, 임명순, 용품사무소의 황진태, 김인석, 기계공작창의 홍중수, 열차차장 이강익, 용산역 개찰계 정창영 등 철도국 산하 기관에서 많은 수련생들이 입관하게 된다. 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무덕관을 철도국 무덕관이라 하였다.

특히 1948년 9월에 무덕관 제1회 승단심사를 했다. 승단자는 김은창, 김용덕, 유화영, 남상현, 문기상, 원용범, 최희석 등 순으로 승단했다. 심사는 봄과 가을, 즉 춘추 두 계절에 정기심사를 개최했으며 많은 유단자를 확보하게 되었다. 전쟁 종전 후 1953년 9월 중앙정부기관이 서울로 다시 가게 되었다. 즉 피난지인 부산 초량 역전에서 개설 운영하던 도장이 있었다. 이때 수련한 1기생이 부산직할시도 본관장이었던 이억천 사범 7단, 최춘식 사범 6단 등 제자 관원들에게 지역 도장을 활성화 시키도록 위임하였다(서상렬, 2012).

그리고 폐허가 된 서울 수도에서 위치가 좋은 서울역 부근 동자동 43번지 국가재산인 낡은 건물을 임대하고 무덕관 중앙본관을 개설하게 되었다. 일반 수련생 및 학생들이 입관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무덕관은 더욱 일일성취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무덕관 유단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명실공히 무예단체로서의 형태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후 1953년 5월에 대한당수도협회 무덕관이라 명명하게 된다. 이는 대한당수도협회를 구체적으로 조직하게 된다. 초대회장에 이성수, 2대회장에 윤치

영 등이 취임 했을 뿐만 아니라 3대회장에 윤성순 전) 교통부장관이 취임하게 된다. 이때 이사장은 창시자 황기였고 또 상무이사에 백락언(본명 서상렬) 사범을 임명하게 되었다(허인욱, 2002).

지난 과거 황기는 태권도 통합 후 초창기 무덕관의 초석이 되어주었던 옛 문학생들을 회상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6.25 전란은 민족의 수난, 즉 무덕관도 그 피해가 말할 수 없이 있었으며 단번 1번인 김은창은 작고하게 된다. 2번 김용덕은 무덕관 전승을 포기하고 사업가로서 진출한다. 또 단3번 유화영도 작고하고 단번 4번인 남상현은 작고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권법을 지도하고 계승하겠다고 하는 그들, 즉 오원영, 함재성, 이상초 등은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시작한 홍성균, 신대영, 윤재철, 김 욱, 김동한 등도 계승하겠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인생의 길을 간다. 하지만 이 시기에 김은창, 김용덕, 유화영, 남상현 등이 그 맥을 이어주어 최고의 관으로서 발돋움하게 되었다(허인욱, 2002).

그 당시 관원들은 선배들과 열심히 수련을 했고 배출된 유단자들이 각기 능력에 닿는 곳을 찾아 도장을 개관하고 관원을 모았다. 이러한 무덕관은 몇 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확장 되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가도 무덕관 도장이 있을 정도였다(서상렬, 2012).

1953년 경찰전문학교에 황기가 출강한 후 당수도 시범연무대회를 개최하고 또 좋은 평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무덕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으며 또 졸업한 경찰관들이 전국에 가면 무덕관을 적극 협조해주는 사람이 많았다. 이로 인해 무도경찰관들을 배출하게 된다. 1957년 무덕관 당수도 저변확대에 대한 보급과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다. 무덕관 중흥기로 삼는 황기는 유단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관세는 더욱 확장하게 되었다. 학원에서도 무덕관 당수도를 입관하는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특히 군부대 군인들과 경찰, 일반인, 직장인 등으로 당수도 보급을 위해 힘을 기울이는 기반을 형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무덕관 당수도 최초의 연무대회는 1947년 가을 교통고등학교에서 개최하였다. 그 이후 1971년 2월까지 한·미·중 대회, 한·일 경연대회 등 크나큰 국제대회만도 6회나 개최하게 되었으며 또 학교 군부대 직장 등의 시

범 연무대회는 매일 1건 정도로 빈번하게 개최하였다. 1972년 2월까지 전국 도장수는 일반도장 3,587개소, 유동관원 394,698명이고 유단자 40,418명 등이었다. 이로써 무덕관 당수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예종목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955년 10월 명동 시공관에서 대한민국 유사 이래 처음으로 당수도 공개 국제행사인 한·중 친선 당수도 연무대회가 무덕관 단독 주최로 대성황리에 개최하게 되었다. 이는 무덕관 당수도 보급에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1955년 공군본부 당수도부가 한영태 사범에 의해 창설되었고 전 공군예하부대에 도장을 개관하기도 한다(서성원, 2007).

공군 10전투비행단인 김영석 사범, 사천비행단인 강명규 사범, 공군사관학교 출신 이강욱 사범 대행, 공군대학은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게 되고 지도하였다. 여기에 이론적 배경을 담당했던 서상렬 사범, 해군사관학교 출신 황진태 사범, 해군본부 김영택 사범, 해군범무감 대령, 해병대 사령부인 정만수 사범, 대령, 해병대 헌병 및 수사대 차수용 사범, 육군본부도장 김만호 사범, 종로Y.M.C.A도장 오세준 사범 등이 운영하여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1957년 주한 미8군사령부에 정성현, 공신영 사범 등이 도장을 개관한다. 파주지구 및 동두천지구 주둔 미군부대에서 이철형, 전재규, 허태희, 안예모, 안경원, 박성기 사범 등이 당수도 도장을 부대 내에 개관하고 관세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오산, 평택 미군부대 김춘식, 최학수 사범, 부산지구 미군부대 최춘식 사범, 군산 미군부대 유기중 사범, 여의도 미군부대 추교승 사범 등이었고 또 주한미군 부대에서 대부분 무덕관 당수도장이 개관되어 무덕관 사범들이 미국진출에 가교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서성원, 2007).

또한 우리나라에서 승단을 한 미군들이 귀국 후 전역하여 도장을 개관하여 많은 수련생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의 정규과목으로 무덕관의 수박도가 채택되었다. 이를 통해 무덕관의 관세가 더욱 확장되었으며 국제교류가 다변화되었으며 이는 임의단체로서 국제무대의 활동은 지대하다고 할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무덕관의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1960년 6월 30일 대한 당수도협회를 폐지하고 사단법인 대한수박도회를 문교부 당국에 등록하고 인가를 받는다. 이로 인해 독자적 국제교류가 용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61년 5월 6일 아세아 당수도 연맹결성을 겸해 전 일본 공수도 연맹선수를 초청하는 역사적 순간들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는 대한민국 초유의 당수도 경연대회를 광화문 시공관인 현)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게 된다.

특히 이 대회로 인해 1962년 일본 대학초청으로 당수도 경연대회 원정을 다녀왔고 동년 같은해 가을 한국초유의 당수도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일본, 중국, 필리핀, 대한민국 등이 아세아 당수도 연맹을 결성하고 초대 회장에 황기가 선출하였다. 이후 1962년 미국 오하이오주, 펜실바니아주, 조지아주, 캘리포니아주, 멕시코 등지에서 무덕관 지관이 설치되는 등 국제적으로 널리 전승되었으며 1964년부터는 소규모의 한·미 친선 당수도 연무대회가 미주 지역 내 곳곳에서 개최되어 무덕관 관세 확장에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허인욱, 2002).

반면 최홍희는 11살때에 광주 학생사건의 여파로 일어난 동맹 휴업의 주모자로 1주일간 구류를 당해 무기징학을 받았다. 이에 그의 아버지가 당시 서예가로 유명한 한일동 선생에게 2년간 서예와 한문을 배우도록 하였는데, 그때 한일동은 붓글씨와 함께 태권을 가르쳤다고 하였다(최홍희, 1997).

하지만 최홍희가 2001년 한병기와 북경에서 한 인터뷰에서 한일동이 태권에 관한 동작은 보여주었지만, 단지 제기차기와 같은 동작이었으며, 도리어 자신이 제기를 잘 쳤다고 하였다. 또한 택견의 송덕기움을 만나 그 동작을 보았지만, 체계적이지 못한 발차기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택견에 관한 일련의 대답에서 그의 무도인 ITF 태권도는 택견의 영향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그의 가라데 수련에 관련한 내용은 비교적 명확한 편이다. 1938년 渡日한 최홍희는 도일 전 장사로 이름난 허씨와의 시비 때문에 힘을 길러야 했고 그때 가라데 유단자였던 고향 선배 김현수의 권유로 가라테를 배우게 되었다(최홍희, 1997).

일본 京都에서 1년 반 정도 편입시험 준비를 하면서 가라테를 수련하였으나, 중학교 4년 편입시험에 합격할 수 없었다. 이후 그는 친구인 이종련이 있는 東京으로 가게 되었고 1941년 봄에 東亞商業學校 야간부 4학년 편입시험에 합격하게 되었다. 이후 中央大學 법과를 입학하게 되었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가라테를 계속 수련하였다.

특히 그의 회고록에서는 가라테를 학교 또는 YMCA 건물 옥상에서 수련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때 최홍희의 가라테 수련에 도움을 준 이가 윤병인이라고 한다(최홍희, 1997). 이호성은 동경에 간 최홍희가 YMCA 지하에 있는 조선 음식점에서 日本大學 학생인 윤병인을 만났고, 이후 YMCA 옥상에서 윤병인에게 가라테를 배웠다고 하였다. 윤병인은 일본으로 유학이전에 만주에서 권법을 배워 이미 상당한 경지에 있었으며, 일본대학을 다니며 그의 무술 실력을 인정한 修道館 도야마 간켄(遠山寬賢)과의 교류를 통해 가라테를 배웠다. 이러한 인연으로 최홍희가 해방 이후 윤병인이 YMCA 권법부를 개관했을 때 참석한 것이다. 국방경비대의 지도를 윤병인에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윤병인에게 받은 영향은 이후 최홍희의 기술체계에서도 이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상세히 서술할 것이다.

청도관 출신 남태희는 최홍희에게 직접 가르침을 준 것은 없다. 하지만 최홍희가 만든 화랑, 충무와 같은 창현류의 틀 제작과 군대에서 태권도를 보급할 때와 이후 망명하여 ITF 태권도를 보급할 때 그 옆을 보좌한 이었기 때문에 초기 기술체계에는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최홍희가 청도관에서 명예 4단을 받았고, 이후 청도관과는 형제관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오도관의 수련 체계가 유사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홍희, 1997).

최홍희가 배운 무도는 일본 교토에서 고향선배 김현수의 알선으로 배웠던 가라테와 도쿄 YMCA 옥상에서 윤병인에게 배운 내용이다. 그러므로 ITF 태권도는 최홍희가 수련한 내용과 남태희를 통해 받은 청도관태권도의 영향을 받아 이를 기초로 만들었던 것이다(허인욱, 2002).

이러한 황기와 최홍희와 유사점이 많은 사람들이다. 우선 두 사람의 체구가 왜소하고 두뇌회전이 빠르고 고집이 세고 굽힐 줄 모르고 한학이 깊은 사

람들이다. 하지만 다른 점은 황기 관장(1913~2002.07.14)이 과묵한 반면 최홍희(1918~2002.06.15.)은 달변이 있고 설득력이 강한 소유자이다. 두 사람은 태권도 명칭 문제로 내심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최홍희가 완전 태권도 통합을 이루지 못한 것은 황기가 장악하고 있는 무덕관 관세가 월등하였다. 즉 무덕관을 제외한 통합이란 명분이 서지 않았으며 최홍희는 황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했으나 그는 호락호락 앓았을 뿐만 아니라, 절대 굽히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였기에 시간이 갈수록 감정이 쌓이게 되었다. 이는 두 사람은 절대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황기의 원칙 고수와 최홍희의 강한 집념으로 인한 영웅심이 상충되어 갈등이 심화되었다. 최홍희가 명명한 태권도 명칭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반면 황기가 최종 협상 말미에서 양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고유한 무술의 연구 단체로 수박도회를 존속시키고 태권도협회는 스포츠 단체로 발전시키는 이원화로 하자는 수정 제의를 한다. 최홍희가 일언지하에 거절했으며 서로가 양속의 결별을 하였다. 최홍희은 시대에 맞는 우리민족의 독특한 무예를 만들겠다는 집념을 갖는다. 1955년 4월경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어렵게 태권도 세 글자의 휘호를 받아냈었다. 그는 군인 장성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이용하여 태권도 명칭을 전 군부대에 정착시켜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한 반면 황기는 역사적 배경을 중시한다는 데에 있었다(최홍희, 1997).

황기가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고유무예를 분석하면 우리나라의 고유한 무예를 국기화 하고자 한다면 역사적 고찰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이는 역사학자 또는 사학계의 권위 있는 석학자들을 통해 몇 번의 공청회를 거쳐 후일 일본 가라테나(공수도) 중국무술의 시비 거리가 되지 않도록 정론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서상렬, 2012).

황기는 우리나라의 고유무예가 있는데 왜 일본 가라테(공수도)와 우리와는 하등의 연관성이 없고 역사성도 없는 태권도라는 이름을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武藝圖譜通志』에 권법에 무보가 상세하게 전해오고 있다는 것과 만주 길림성 집안 현에 고구려벽화고분에서 발견한 논리를 주장했다(이경명, 2002).

특히 고려무신 난을 촉발시킨 것은 수박희(手搏戲)이었으며 고려 의종 24년(1170년) 8월 조에 의하면 의종은 보현원(普賢院)으로 가던 중에 장병들에게 오병수박희(熬餅手搏戲)를 시켰다. 다섯 명의 군사가 한조가 되어 겨루는 그때 당시 권법경기이다. 수박은 수벽타(手擲打), 수박치기라고도 하는데 고려 의종은 수박을 즐기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깊은 뿌리가 있으며 우리 고유무예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이는 현시대의 무덕관 태권도가 지향하고자 하는 근본적 본질이다.

#### IV. 수박도 창시자 황기와 태권도 창시자 최홍희의 생애와 인생철학

5.16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무질서한 정국을 수습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무예제도 통합하여 국기를 만들었다. 이를 지원하고자 한다는 미명으로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태권도협회로 통합하라는 강권이 나왔으나 통합의 조건이 무덕관을 흡수하려는 조건이고 보니 당시 무도계에서 관세가 제일 큰 무덕관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는 대한태권도협회 초대회장이 군 장성인 채명신을 보아도 알 수 있다(서상렬, 2012).

특히 무덕관이 통합조건에 불응하자 황기가 오래전부터 출장하고 있던 공군사관학교와 경찰전문학교의 태권도 교관직에서 강제 해임을 당하였다. 무덕관이 관여하고 있는 각 기관 당수도 도장들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매년 실시하는 전국체전은 자기 고향에 명예를 걸고 출전하여 기량을 겨루는 국가체전인데 무덕관 관원은 대한체육회의 산하단체가 아니라 하여 선수 선발에서부터 제외 시켜버리니 지방 유지들의 불만이 커져갔다. 이는 협회 행사는 협회가 발행한 공인 단증 소지자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는 구실로 무덕관 관원은 제외 시켜 버리니 무덕관 단증을 무력화 시키는 전법도 시작이 되었

다(서성원, 2007).

이로 인해 지방도장에서는 타관들의 유인으로 유급관원들이 전관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하였다. 태권도협회 통합에 복잡한 이해관계의 실정을 잘 모르는 사범들의 불평도 쌓이게 되니 중앙본관의 고단자들도 난감 할 뿐이었다. 이 시기 무덕관의 위계질서는 황기를 정점으로 하여 누구도 불편한 건의를 함부로 말할 못하는 실정들이었다.

고단자 그룹은 8, 7단 몇몇 사범이 일선 관무와 각도 본관장 자리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나 모두가 직장과 생업형편이 여의치 못해 시간의 여유가 없다 보니 관무에 전념하기도 어려운 실정들이었다.

특히 관장들도 신념도 일리가 있었지만 시대의 흐름에 반대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절박한 형편이었다. 절박한 이 현실을 타개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실사구시(實事求是)에 따라 함을 명분으로 생각하는 의지가 투합된 사범들(경상북도 도 본관장 지상섭 사범 7단, 강원도 도 본관장 이창복 사범 6단, 중앙도장 서상렬 사범 7단) 3인이 결의를 다진 후 회초리 세 개를 준비하고 관장님 댁을 방문하여 무릎 꿇고 엎드려 “관장님 성인도 종시숙이란 속담도 있습니다.” 라며 눈물로 태권도 통합을 간청하였다. “무덕관 장래를 크게 내다 보시고 저희들을 믿어 주십시오! 무덕관 일부라도 태권도와 통합 합류 할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애원을 했다. 당수도 보급과 무덕관 관세 확장에 공로가 많고 크다고 할 수 있는 애제자들의 간청에 황기의 역장이 무너졌다(서상렬, 2012).

그때 분위기는 “무거운 침묵이 흐른 후 이렇다 할 말이 없었으나 황기는 “모두들 어딜 가든지 무덕관 금도를 지키고 몸조심들 하게나” 하시면서 세 사람의 등을 다독거리며 울먹이던 모습과 함께 “인자하신 선생님, 자애로운 관장님 다시 뵙고 싶다.” 같이 갔던 두 사범들은 작고했고 당시의 장면을 기억하는 서상렬 전)사무총장만이 있을 뿐이다.

1965년 3월 16일 뜻을 같이하는 중앙의 고참 사범들과 각시도 본관장들이 마포도장에 모였다. 소위 마포회의이다. 방대하던 무덕관은 탄압을 견디다 못해 두 갈래, 즉 태권도협회에 가담하는 신간파(身幹派)와 순수무도단체로서

대한수박도회에 남는 수구파(守舊派)로 양분되고 말았다. 태권도파로 일컬어는 마포회의 참가자들은 비참하리만치 처절, 비장함을 보였다.

그들은 “우리민족이 배달의 민족인 것처럼 황기 선생님은 우리 무덕관의 사부이시며 영원한 우리 무도의 선생님이로 모신다. 시류에 따라 길을 달리 한다 하여도 무인으로서 換父易祖(환부역조 : 애비와 할애비를 바꾼다는 것)를 할 수는 없다. 어느 곳에 가있더라도 무덕관 관원의 긍지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자.” 라고 했다.

취기가 오른 가운데 누군가 말했다.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자고 함께 결의했다. 황기와 등을 돌려 갈라설 수박에 없었던 절박한 현실은 무덕관 앞날과 관원들을 살려야 한다는 충정이었다. 보기에 따라서는 역모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음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이는 3월 16일 전국 시도 본관장 및 고단자회의에서 태권도 무덕관을 이끌어 갈 집행부를 만장일치로 구성하였다. 태권도 무덕관 초대관장 이강익 사범 8단, 상임고문에 정창영 사범 8단, 홍종수 사범 8단, 무덕관 사무총장에 서상렬 사범7단, 중앙도장 전임 사범에 문선선 사범 7단을 선출하였다(서상렬, 2012).

많은 사람들의 정은 시간과 공간에 반비례한다. 하지만 그로부터 37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서상렬 전) 사무총장은 “우리 무덕관이 다시 통합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 황기선생님 살아 생전에 흠어진 당수도무덕관, 태권도무덕관, 수박도무덕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관장님 앞에서 무덕관 창립총회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하고 무덕관 무술올림픽 같은 경연대회를 개최되어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잊은 적도 없다.” 고 했다. 또한 그는 “세월 앞에 장사는 없다. 관장님께서 연로하시어 노환으로 별세 하셨습니다 부고를 받고 상청 앞에 엎드리니 하늘이大怒(대노) 하심을 느꼈다. 호왈 세계 각국에 100만명이 넘는 무술인 제자를 양성하신 선생님의 마지막 가시던 날 가족장으로 초출하게 치루어진 영정 앞에 통한의 눈물만 흘렸다. 그 사람의 성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해 본다. 선생님을 사회장 못지않게 무덕관장으로 성대 장엄하게 모실수도 있는 장례가 아니었고 기막힌

일이었다. 수박도가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서 정규과목으로 채택되어 학생들이 고구려 무인복장 무덕관 유단자 도복으로 수박도를 수련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던 관장님, 만면에 희색이 가득하시던 관장님, 생전에 어려웠고 섭섭하시던 일 모두 다 잊으시고 편히 쉬시옵소서 천추만대 왕생극락 하시면서 우리 무덕관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서기 2002년 7월 14일 향년 89세로 장서 하시다.” 라고 서상렬 전)사무총장은 회상하고 있다.

반면 최홍희는 1918년 함경북도 화대군 룡원리에서 출생했다. 1937년 일본 동경에서 1년 반 예비학교를 다니고 중앙대학에 입학 한 후 학병으로 일본 군대에 들어가 8.15해방을 맞이한다. 1946년 1월 국방경비대에 입대 군인으로서의 경력을 쌓아 1954년 육군소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6군단장을 거쳐 1962년 예비역에 편입되었다(서상렬, 2012).

1954년 4월11일 태권도라는 명칭을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휘호를 받아 채택하여 자기 휘하 군부대에 급격히 확장 보급해 나갔다. 당시 당수도, 공수도, 수박도, 권법 등을 고집하던 타관의 반발 때문에 1961년부터 1965년 8월 경까지는 태수도라는 타협 명칭으로 협회를 구성하였으나 1965년 1월 주 말레이시아대사를 사임하고 귀국한 후 최홍희가 태수도협회 회장이 되었고 그 해 8월 자신이 주장한대로 공식 명칭을 대한태권도협회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최홍희의 평생소원이 이루어진다.

무덕관을 제외하고 오만 등등하던 태권도협회에 역사적인 이변이 생겼으니 태권도협회 회장에 취임 한지 채 1년도 안되서 최홍희가 1966년 정기총회에서 자기수족과 다름없던 집행부일파의 계략으로 협회에서 불명예 퇴진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으니 최홍희로서는 안타깝고 절통한 일이었다(서상렬, 2012).

태권도를 신양처럼 여기며 살아온 최홍희는 1966년 3월22일 자기가 해외 대사로 근무하면서 닦아 놓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서독, 터키, 미국, 이집트, 아랍공화국, 이태리, 한국 등 10개국을 주축으로 하여 국제태권도 연맹을 조직하여 총재가 되었지만 국내 기반이 허약하다 보니 해외에서도 떠돌이 신세가 된다. 그토록 심혈을 경주하여 만든 오도관도 최홍희가 태권도협회에서 불신임으로 퇴출당하고 국제태권도연맹을 조직하니 급격히 쇠퇴해

갔다. 현종명, 광병오의 작고로 백중기가 관장직을 맡아 명맥을 유지하는데 급급하였다(김산, 김창우, 송일훈, 2008).

그나마도 1971년 김운용은 대한태권도협회 6대회장으로 등장하면서 최홍희의 운신의 폭이 좁아져 갔다. 1972년 국제태권도연맹을 토론토로 옮겨간 최홍희는 그곳에서 연맹 산하 세계조직을 관장하는 노력을 많이 하였으나 국내 기반이 허약하다보니 어려움이 뒤 따랐다. 특히 김운용은 1976년 문교부에 국제태권도연맹을 유명무실한 단체로 몰아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였다.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최홍희는 평소 친분이 두텁던 천도교 교령을 지낸 최덕신의 유혹에 캐나다에서 친북활동을 벌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최홍희가 평생토록 어렵게 창안해 만든 태권도를 통해 입신양명한 사람들이 많은 텐데 최홍희를 구제하여 줄만한 방법은 없었다. 불치의 병마에서 시달리면서도 막다른 골목에서 허덕이던 최홍희가 북한에 태권도를 보급시키는데 앞장섰으니 그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최홍희 그는 2002년 6월 15일 향년 84세의 나이에 숙환으로 별세하였다. 그는 어려울 때 우리 무덕관 몇몇 사범들이 최홍희를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역부족이었으니 연민의 정을 금할 수 없다. 세계태권도에 아버지라 일컬이었던 최홍희의 뛰어난 재주와 태권도의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 V. 국기 태권도로서와 전통무예 수박도로서 역사적 관점 추이의 논의

대한민국 태권도에 있어서 황기와 최홍희는 대단한 인물이다. 두 사람에 의해 오늘날 대한민국 태권도는 세계적인 무도를 대표한다.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대한민국 무예를 세계위상에 알리는 것과 또 전 국민이 무예로서 찬란한 유산을 지키는데 있다. 즉 태권도를 세계위상에 알리고자 하였으며 한사람은 다른 무예로서 수박도를 세계정상에 올려놓아야 했던 것을 알아

야 한다. 무명에 따라 비록 다른 행보를 했더라도 두 사람의 의지에 따라 국익선양에 이바지해야 했다(서상렬, 2012).

특히 어느 면에서는 같은 의지를 했고 이것은 같은 유사종목으로 오르지 국익을 생각하고자 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안타까운 현실은 두 사람이 통합했더라면 무언가 새로운 역사적 근원으로서 수박도나 태권도를 재창출 있었다고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생각으로는 태권도 원형으로 가되 품세적 측면에서는 수박, 즉 권법을 추구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을 만들어야 한다. 국익적 선양으로 볼 때 가라테(공수도)설과 혁파할 수 있는 것을 재창출해야 한다. 모든 역사적 근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법에 관련된 근본적 초석은 《武藝圖譜通志》이라는 우리나라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때 당시 황기가 물려준 수박도와 화수도 그리고 당수도 저서에서 그가 편찬한 내용은 대단하다. 그 이유는 인문과학적 측면 자연과학적 측면을 다양하게 신체학문의 근원을 만들었으며 더욱 진보된 형태를 완성했기에 가능하였다(서상렬, 2012).

또 한사람은 정치적 수단이 탁월했으며 그로 인한 태권도를 세계정상에 올려놓았다. 이는 강한 진념으로 승화되어 우리나라의 무예를 무적으로 한걸음 도약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 수 있었다.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오로지 무예를 세계정상에 올려놓고자 했다. 비록 북한 태권도에 영향을 미쳐 다른 행보를 했다. 북한 태권도의 형태적 측면에 있어서 한국 태권도와 다른 측면을 주고 있어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김산, 김창우, 송일훈, 2008).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에 고유한 무예의 연구단체로 수박도회를 존속시키고 태권도협회는 스포츠 단체로 발전시키는 이원화로 다시 한 번 부활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민족의 독특한 무예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황기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고유무예로서 그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으며 역사학계에서 일본 가라테나(공수도) 중국무술의 시비 거리가 되지 않도록 정론을 세워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서상렬, 2012). 그 이유는 간단하다. 황기가 연구한 수박도는 우리고유로서 고증을

했고 이로 인하여 일본 가라테(공수도)와 우리와는 하등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기에 보다 심오한 역사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 권법에 무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만주 길림성 집안 현에 고구려벽화고분에서 발견한 사료를 바탕으로 다시 집대성 한다면 태권도는 스포츠경기로서 전통무예 수박도로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기 태권도 역사적 근원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보다 심오한 우리 전통무예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고 태권도가 현재 지향하고자 하는데 그 본질에 가까워 질 것이라 판단된다.

## VI.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무덕관 황기 수박도와 오도관 최홍희의 태권도 역사적 재조명을 통해 역사적 근원과 신체학문실제의 학문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무덕관 황기 수박도와 오도관 최홍희의 태권도에 관한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 및 논의하여 결론으로 도출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황기와 최홍희와 유사점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다른 점은 황기는 과묵한 반면 최홍희는 달변이 있고 설득력이 강한 소유자이다. 두 사람은 태권도 명칭 문제로 내심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최홍희가 완전 태권도 통합을 이루지 못한 것은 황기가 장악하고 있는 무덕관 관세가 월등하였다. 즉 무덕관을 제외한 통합이란 명분이 서지 않았으며 최홍희는 황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하였으나 그는 호락호락 양았을 뿐만 아니라, 절대 굽히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였기에 시간이 갈수록 감정이 쌓이게 되었다. 이는 황기와 최홍희 두 사람이 절대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황기는 우리나라의 고유무예가 있는데 왜 일본 가라테(공수도)와 우리와는 하등의 연

관성이 없고 역사성도 없는 태권도라는 이름을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 권법에 무보가 상세하게 전해오고 있다는 것과 만주 길림성 집안 현에 고구려벽화고분에서 발견한 논리를 주장하였다. 무덕관이 통합조건에 불응하자 황기가 오래전부터 출장하고 있던 공군사관학교와 경찰전문학교의 태권도 교관직에서 강제 해임을 당하였다. 무덕관이 관여하고 있는 각 기관 당수도 도장들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매년 실시하는 전국체전은 자기 고향에 명예를 걸고 출전하여 기량을 겨루는 국가 체전인데 무덕관 관원은 대한체육회의 산하단체가 아니라 하여 선수 선발에서부터 제외 시켜버리니 지방 유지들의 불만이 커져갔다. 이는 협회 행사는 협회가 발행한 공인 단증 소지자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는 구실로 무덕관 관원은 제외 시켰고 무덕관 단증을 무력화 시키는 전법도 시작이 되었다.

둘째, 김운용은 1976년 문교부에 국제태권도연맹을 유명무실한 단체로 몰아인가를 취소하도록 하였다.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최홍희는 평소 친분이 두텁던 천도교 교령을 지낸 최덕신의 유혹에 캐나다에서 친북활동을 벌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최홍희가 평생토록 어렵게 창안해 만든 태권도를 통해 입신양명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최홍희를 구제하여 줄만한 방법은 없었다. 불치의 병마에서 시달리면서도 막다른 골목에서 허덕이던 최홍희가 북한에 태권도를 보급시키는데 앞장섰고 그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 어려울 때 우리 무덕관 몇몇 사범들이 최홍희를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역부족이었으나 연민의 정을 금할 수 없다. 세계태권도에 아버지라 일컬어졌던 최홍희의 뛰어난 제주와 태권도의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 태권도에 있어서 황기와 최홍희는 대단한 인물이다. 두 사람에게 의해 오늘날 대한민국 태권도는 세계적인 무도를 대표한다.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대한민국 무예를 세계위상에 알리는 것과 또 전 국민이 무예로서 찬란한 유산을 지키는데 있다. 어이하던 태권도를 세계위상에 알리고자 하였으며 한사람은 다른 무예로서 수박도를 세계정상에 올려놓아야 했던 것을 알아야 한다. 무명에 따라 비록 다른 행보를 했더라도 두 사람의 의

지에 따라 국익선양에 이바지하였다. 특히 어느 면에서는 같은 의지를 했고 이것은 같은 유사종목으로 오르지 국익을 생각하고자 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안타까운 현실은 두 사람이 통합했다면 무언가 새로운 역사적 근원으로 서 수박도나 태권도를 재창출 있었다고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생각으로는 태권도 원형으로 가되 품세적 측면에서는 수박, 즉 권법을 추구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을 만들어야 한다. 국익적 선양으로 볼 때 가라데(공수도)설과 혁파할 수 있는 것을 재창출해야 한다. 모든 역사적 근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법에 관련된 근본적 초석은 《武藝圖譜通志》이라는 우리나라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때 당시 황기가 물려준 수박도와 화수도 그리고 당수도 저서에서 그가 편찬한 내용은 대단하였다. 그 이유는 인문과학적 측면 자연과학적 측면을 다양하게 신체학문의 근원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종합해 볼 때, 무덕관 황기 수박도와 오도관 최홍희 태권도 역사적 재조명을 통해 역사적 근원과 신체학문실제의 학문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태권도 관장 및 지도자 및 수련생, 전공학생들에게 교육적 가치와 무덕관 황기 수박도와 오도관 최홍희 태권도의 무형유산의 문화적 가치를 통한 제반적인 학문적 지식체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강원식, 이경명(1999). **태권도 현대사**. 서울: 보경문화사.
- 강경화(2006). **현대 태권도의 정체성 고찰 - 한국 무예의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 국기원(1993). **국기 태권도교본**. 서울: 오성출판사.
- 강신철(2002). **사진으로 보는 태권도**. 서울: 자연과 사람.

- 강원식(2002). **우리 태권도의 역사**. 서울: 상아기획.
- 국기원(2012). **40년사**. 국기원.
- 국기원(2015). **태권도 그랜드마스터즈 초청- 기념사업 태권도 9개관 역사 자료집 -**.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 김방출(2006). 태권도사 논쟁에 대한 쟁점과 과제. **체육과학연구**, 17(1), 75-82
- 김용욱(2013). **태권도철학의 구성원리**. 서울: 통나무.
- 김주형(2004). **이야기 태권도**. 서울: 상아기획.
- 김기홍, 한국선, 김동규(2007). **태권도의 역사철학적 탐구**.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김영선(2011). **우표로 보는 태권도 발자취**. 서울: 상아기획.
- 김동우(2014). **광복이후 한국 태권도 경기의 변천과정**.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김산, 김창우, 송일훈(2008). ITF 태권도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 **대한무도학회지** 10(2), 69-84.
- 김 산, 허인욱(2002). 택견의 어원에 대한 소고. **한국체육사학회**, 7(9), 189-201.
- 김 산(2002).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권법에 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김명수(1992). **태권도의 스포츠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미간행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국기원(2002). **태권도교본**. 국기원.
- 김지혁(2010). **태권도 경기의 변화에 대한 현상학적 논의**. 미간행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김석련(2004). **태권도 수련의 가치 구성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김철주, 정창근, 이기정, 장종오(2003). 태권도 수련이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세계태권도학회지**, 6(1), 587-641.
- 김중헌, 곽택용, 임태희, 김주연(2010). 전통무예시연회 : 전통무예 역사교육의 신체학문에 관한 정체성을 탐구하다.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지.
- 권혁정, 이동건(2015). 한국의 태권도사상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철학회지** 23(2), 235-268.

- 나채만(2007). **태권도의 전문화 과정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남승현(1994). **한국태권도시범단의 해외 순시시범이 국위선양과 스포츠외교에 미친 영향**.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대한태권도협회(2015). **대한태권도협회 50년사**. 서울: 애니빅.
- 박민호(2012). **태권도 세계화 전략의 전개양상과 향후 과제**.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배영상, 송형석, 이규형(2002). **오늘에 다시 보는 태권도**. 서울: 이문출판사.
- 류병관(2007). **태권도가 정신 건강에 좋아요**. 서울: 광림북하우스.
- 류병관, 지치환(2007). 태권도 수련의 정신화 과정. **대한무도학회지**, 9(2), 81-96.
- 송형석(2011). **태권도의 철학적 탐구**. 서울: 한국학술정보.
- 송형석, 이규형(2009). 태권도수련과 도덕교육의 관계에 관한 소고. **한국체육철학회지**, 17(2), 227-241.
- 송일훈 외(2008). 태권도 美와 예술의 美에 관해. **한국체육과학회지**, 17(3), 3-16.
- 송문철(2015). **제주 태권도 경기 변천과정**. 미간행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서성원(2007). **태권도 현대사와 길동무하다**. 서울: 상아기획.
- 서상렬(2012). **무덕관은 통합하여야 한다**. 서울: 동양비즈니스폼.
- 유진산(2008). **태권도의 중국 진출 역사 및 현황**.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이경명(2002). **태권도의 어제와 오늘**. 서울: 어문각.
- 이경명(2012). **태권도 인명사전**. 서울: 퍼플.
- 이창후(2003). **태권도의 삼재강유론**. 서울: 상아기획.
- 이창후(2010). **태권도 현대사와 새로운 논쟁들**. 서울: 상아기획.
- 이창후(2000). **태권도의 철학적 원리**. 서울: 지성사
- 이희녕(2008). **태권도를 통한 스포츠외교 성과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육군본부(1966). **태권도**. 육군본부.
- 이원국(1968). **跆拳道 教範**. 서울: 진수당.

- 이호성(2007). **한국무술 미 대륙을 정복하다**. 서울: 한국학술정보.
- 안용규(2000). **태권도 역사 정신 철학**. 서울: 21세기교육사.
- 양진방(1986). **解放以後 韓國 跆拳道의 發展過程과 그 歷史的意義**.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양현석(2006). **광복 후 태권도세계화의 변천과정**. 미간행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왕유월(2010). 태권도의 중국 내 20년간의 발전과정 및 미래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대한무도학회지**, 12(1), 29-38.
- 지철규(2008). **태권도 수련문화의 철학적 구성 원리에 관한 연구**. 미간행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장 권(2010). **한국 태권도 경기사 연구**. 미간행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정정규(2008). **광복이후 태권도 시대적 변천사에 대한 문헌적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최점현(2008). **대한민국 태권도 오천년사**. 서울: 상아기획.
- 최흥희(1959). **跆拳道 教本**. 서울: 성화문화사.
- 최흥희(1965). *Taekwondo*. Daeha publication company.
- 최흥희(1966). **태권도 지침**. 서울: 정연사.
- 최흥희(1972). **태권도 교서**. 서울: 정연사.
- 최흥희(1983). **태권도 백과사전**. 외국문종합출판사.
- 최흥희(1997). **태권도와 나 1**. 사람다움.
- 최흥희(2000). **태권도와 나 2**. 사람다움.
- 최흥희(2003). **태권도와 나 3**. 사람다움.
- 한병기(2003). **고수를 찾아서**. 서울: 영언문화사.
- 허인욱(2008). **관을 중심으로 살펴본 태권도 형성사**. 서울: 한국학술정보.
- 허인욱(2002). 수박회에 대한 고찰. **한국체육사학회지**, 7(10), 189-201.
- 황기(1949). **화수도교본**. 조선문화교육출판사.
- 황기(1970). **수박도 대감**. 삼광출판사.
- 황기(1992). **수박도**. 비매품.
- 황기(1993). **무도철학**. 세계원색출판사.

## ABSTRACT

### **Mukdeokjeon Hwang, Gi's Soobahkdo and Ohdokwan Choi, Honghee's Taekwondo historical reappearance**

Kim, Jong-Kil(Yong-in Univ.)

This study presented the historical sources and the actual academic plan of physical education through the historical re - examination of the Moo - duk ' First, there were many similarities between Hwanggi and Choi Honghee, but it is a pity that the two never achieved unification. Secondly, when Hwanggi refused to integrate the Mudukan, the national championships held every year are national competitions in which he competes with his home country in honor of his hometown. The Mudukan officials were excluded from the selection of the athletes by the Korean Sports Council. On the other hand, Choi Hong-hee should acknowledge his contribution to the spread of Taekwondo in North Korea. We must highly appreciate the outstanding talent of Choi Hong-hee, who was the father of world Taekwondo, and the contribution of Taekwondo. Third, Taekwondo in Korea was able to enter the world martial arts today by Hwang Gi and Choi Honghee. In other words, Choi Honghee wanted to show Taekwondo to the world stage. Hwangki put the Soobahkdo to the top of the world. Taking all the above into consideration, it will be possible to present the academic method and identity of historical sources and physical education through the historical reexamination of the Mukdokwang Waterfall and Ohdo Park, Honghui and Taekwondo.

Key words: Muduk Pavilion, Soobahkdo , Ohdokwan, Taekwondo, Repeat, History

논문투고일 : 2020.06.22.  
심사일 : 2020.07.10.  
심사완료일 : 2020.07.28.